

투데이 칼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농정 대전환과 전북의 미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
복한 대한민국.”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그
리는 국정 비전 속에서 강조하는 농
업은 더 이상 1차 산업이 아니라 국
가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어 농
도인 전북인들은 기대를 갖게 된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내세운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모두가 잘사는 균
형성장’의 핵심이 바로 희망을 실현
하는 농산어촌 전략이라고 할 수 있
겠다.

그동안 앞선 정부의 각자도생의 시
대를 넘어 이제 공존동생(共存共生)
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농정의 대전
환이 시작된 것이다.

그 중심에는 세 가지 큰 변화가 있
다.

첫째는 식량안보와 농가소득을 국가
가 책임지는 농정이다. 이재명 정부에
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해 타작물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불가
피한 과잉 생산분은 정부가 매입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주장한다.

또한 농림위성을 활용한 정밀 예측
과 자조급 관리 강화를 통해 시장 불
안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확대, 전략작물 직불제
도입 등은 농민의 소득 안정망을 확
충하는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특
히 일정 수준 이하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질 경우 저등으로 소득을 보전하
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민에게 실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질적 ‘최후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들러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국
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농업재해
국가책임제도 강화된다. 보험에 가입
하지 못한 작물에도 피해 보상 시스
템을 도입해, 농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든
든한 마음이다.

둘째는 농업의 산업화와 미래화를
추구해서 중 소농 중심의 맞춤형 스
마트팜 모델 개발, 농기자재 공유센터
구축, AI·로봇 기술의 접목으로 생산
성을 높이고 청년 인재 유입을 촉진
한다고 하니 더 기대된다.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한식·전
통주 산업 육성, 제외공관 거점화, 문
화 마케팅 연계도 추진될 계획이다.

유통 구조 또한 과감히 혁신된다.
농산물 도매 유통의 절반 이상을 온
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이고, 스마트 산
자유트랜저(ARC)를 대폭 확충해 생산

자와 소비자가 투명하게 연결되는 체
계를 만든다고 한다.

이들러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와 탄
소중립 직불제 도입으로 농업이 기후
위기 대응의 주체로 나설 길도 열리
고 있다.

셋째는 균형성장과 재생에너지 전환
의 선도를 추구해서 농산어촌을 더
이상 낙후 지역으로 두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중심축으로 키우는 것
이다.

농촌 특화지구를 육성하고, 귀농·
귀촌 지원을 복원하며, 왕진버스와 AI
교통시스템 도입 등으로 생활의 질을
높인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농촌 RE100 실
현과 햇빛소득 마을 조성이다. 영농형
태양광과 주민 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를 확산해 농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
체가 되도록 한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된다.

이러한 농정 대전환 혁신과 변화의
최전선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있다.
전북은 정부가 추진하는 ‘5국 3특’ 균
형성장 체제의 핵심 축으로, 농업 중
심의 혁신 성장 모델을 실현할 제도
적 기반을 갖췄다.

특히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는 그
상징이다. 2.7GW 규모의 수상태양광
과 풍력발전,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전북은 농업과 에너지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곳에서 추진되는 ‘햇빛소득 마을’
과 ‘자산지소형 RE100 단지’는 농촌
이 에너지 생산으로 기본소득을 창출
하는 미래형 지역경제 모델의 출발점
에서 우리 전북인은 기대를 갖게 된
다.

결국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농정
대전환은 농민의 생계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으
로 식량 주권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균형성장을 아우르는 이 길 위에서
전북은 가장 앞서 있어 전국을 선도
할 것이다.

새만금의 햇빛이 농촌의 새로운 소
득이 되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전
북의 물결이 곧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희망의 무대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공존동생의 가치, 그 중심에 전북이
서 있고 ‘박무호산 사무국’가 라는 말
처럼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최전선
핵심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 설

글로벌대학30 상생 협력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문
화산업과 관광산업과를 비롯
해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전
북관광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문화·관광·콘
텐츠 소통의 날’ 간담회를 진
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콘텐츠융합진
흥원이 수행 중인 전북대 글로
컬대학 30 지역상생사업 과제
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
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대학 30 사업은 교육부
가 2025년까지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정해 지역 혁신 생태
계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내에서는 4년제 종합대학인
전북대(국립)와 원광대(사립)
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특히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은 전북대 글로벌30 사업의 일
환으로 △전북형 신기술 콘텐
츠 융복합 아카데미 조성 사업
(22억 원) △문화콘텐츠 진

로·작업 원스톱 지원 사업(18
억 원) 등 2개 과제를 수행 중
이다.

총사업비 40억 원 규모로 추
진되는 이 사업은 지역 인재
육성과 기업 성장, 일자리 창
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기
술 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는
AI와 홀로그램 등 신기술을 접
목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
하고 있다.

또 문화콘텐츠 진로·직업 원
스톱 지원 사업은 XR 스튜디
오 교육실을 기반으로 청년층
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며, 매
년 3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
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정기적인 도·출연기관 소통
간담회는 각 기관의 사업 성과
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다. 지속적인 소
통을 통해 출연기관 간 시너지
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
하기를 바란다.

김영진 시집 출간

전북 출신 김영진 시인이 시
집 ‘바람이 뭘지니’를 출간했
다. 시인은 맑은 시심을 가지
고 시를 추구해 왔다. 교육자
로서 후학 양성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신실한 신앙인으로 박
애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그는 ‘작은 시 한편으로 하늘
의 구름이 곁하고 바람이 순해
지고, 땅 파먹기가 사라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집에는 우선, 회고의
시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세속적인 원망과 자기변명과는
무뎠하게 구분된다. 이 중에서
제구실 제 대로 못했다 생각하
는 것은 드물고 맑은 이상을
가진 자만이 취할 수 있는 결
혼의 태도이다.
다음으로 미래에 대한 시인의
태도와 자세를 엿볼 수 있다.
그의 주름살은 참으로 선하게
새겨져 있다. 그는 세계 선교

활동과 호스피스 병동 봉사자
등의 실천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앙인으로 1997년 시집 ‘주
님 찾기’로 작품 활동을 시작
해 2000년 ‘내 마음의 수채화’,
2003년 ‘나무들이 사는 마을’
등의 시집을 냈다.

또 2011년에는 ‘타자마할의
눈물’을 출간하고 2016년에
‘여섯시 반’과 2020년에 ‘집자
가의 길’ 등의 시집을 내는 등
꾸준히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
운 시를 책으로 엮어냈다.

한편 김영진 시인은 지난 1월
‘조선의 숨결’이라는 민조시집
을 냈다. 가야금과 거북선, 널
뛰기 등 40여 편으로 엮은 제1
부 ‘조선의 숨결’부터 갈대와
고려나, 다람쥐 등 주옥 같은
30편의 시를 담은 제2부 ‘들려
오는 바람소리’까지 총 6부에
걸쳐 208편의 아름다운 민조시
를 들려준다.

독자제언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이 필요한 때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코로나19 이
후 혼잡이나 혼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면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음식을
시켜먹는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
와 함께 배달의 이동수단으로 이륜차를
이용하게 되면서 교통법규 위반 및 교
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되는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구조적으로 주행함에 있
어 안정성이 떨어지고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충격 등을 흡수 할 차체가
없어 밖으로 노출된 운전자의 신체는
지면 및 다른 차량에 충돌하여사고의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게 되고 큰 부상
으로 이어지고 있어 교통법규 준수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함께 교통사고 예
방이 필요하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속에서 이륜차를
이용함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유형은 과

속·신호위반·중앙선침범·인도주행·
안전모미착용 등을 볼 수 있다.

빠른 배달주문등으로 인하여 잦은 교
통법규 위반 및 여름철 더운 날씨 때문
에 안전모 미착용 등 인도주행으로 보
행자 안전보행 위협 및 이륜차 운전자
가 교통사고로 큰 부상을 당하고 있다.

이륜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
통경찰은 시간·계절별로 이륜차의 교
통법규 위반 운전자 단속과 함께 배달
대행업체를 방문하여 교통안전교육 실
시 및 농촌지역 교행 이륜차 운전자들
에게 안전모를 지급하는 홍보활동과 함
께 지속적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강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경찰의 예방활동도 중요하지만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준법·안전의식
을 가지고 이륜차 운행 시 교통법규 준
수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때이다.
최재혁 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찰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암살된 우루아판 시장의 관 운구하는 사람들



2일(현지 시간) 멕시코 미초아칸주 우루아판에서 전날 암살당한 카를로스 알베르토
만소 로드리게스 시장의 관이 운구되고 있다. 만소 시장은 광장에서 열린 ‘죽은 자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가 수차례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범인은 현장에서 사살됐다.
그는 지역 주민을 갈취해 온 마약 밀매 조직에 맞서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